



두산과 KIA 양 팀 감독과 대표 선수들이 24일 전남대학교에서 열린 한국시리즈(KS) 미디어데이에서 우승컵을 놓고 선전을 다짐하고 있다. 왼쪽부터 두산 오재일 유희관 김태형 감독, KIA 김선빈 김기태 감독 양현중, 미디어데이부터 뜨거운 입담 대결을 펼쳐 KS 대혈전을 예고했다. 광주 | 김종원 기자 won@donga.com

“1선발은 당연히 니퍼트” vs “우리는 키 순서로” 판타스틱4 ‘사우나 회동’

-두산 김태형 감독

〈1차전 선발은 핵터〉-KIA 김기태 감독

두산-KIA KS미디어데이 역대급 설전

김태형감독 “빠고 싶은 한사람 김기태”
유희관 “단군매치란 꿈이 이긴다는 것”

양현중 “우리가 더 나은건 우주의 기운”
김선빈 “두산은 여유, 우린 간절함 많아”

한국시리즈(KS) 미디어데이가 24일 광주 전남대학교 용지관 컨벤션홀에서 열렸다. KIA에서 김기태(48) 감독과 양현중(29) 김선빈(28), 두산에서 김태형(50) 감독과 유희관(31) 오재일(31)이 대표자로 참석했다. 그런데 예상을 뛰어넘는 역대급 KS 미디어데이 ‘셀전’이 펼쳐졌다. 감독들은 물론 선수들도 재치 있는 농담 속에 상대를 적절히 자극하는 도발까지 펼치면서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과연 KS가 끝난 뒤 이들의 표정은 어떻게 변할지 벌써부터 궁금할 정도로 흥미로운 입씨름의 향연이었다.

●김태형 VS 김기태 감독들의 난타전

보통 미디어데이에서는 상대를 배려하느라 말조심을 하기 때문에 분위기가 딱딱하거나 재미가 없지만, 이날은 달랐다. 양 감독이 시작부터 말쑥치를 주고받으면서 분위기를 띄웠다.

두산	한국시리즈 KIA&두산 엔트리			KIA
	김태형	감독	김기태	
한용덕 공필성 정현도 강동우	코치	조계현 김민호 박홍식 김종국		
강인권 이용호 강석천 최경환(8명)		이대진 김태훈 타게시 코우조(8명)		
김승회 보우먼 김강를 장원준 유희관 김성배 니퍼트	투수	심동성 임창용 김윤동 고효준 임기영 핵터 뎀딘		
이용찬 김명신 이현호 이영하 함덕우 박치국(13명)		박진태 홍건희 김세현 양현중 임기진(12명)		
장승현 박세혁 양의지(3명)	포수	김민식 한승택 이정훈(3명)		
서예일 류지혁 허경민 오재원	내야수	김선빈 서동욱 최원준 안치홍		
오재일 에반스 김재호 최주환(8명)		김주찬 이범호 김주형 고창혁(8명)		
조수형 국해성 정진호 김재환 박건우 민병현(6명)	외야수	신종길 유재신 이명기 나지완		
		최형우 버나디나 김호영(7명)		

사회자가 김태형 감독에게 ‘플레이오프(PO)를 치른 소감부터 말해달라’고 하자 “한국시리즈 갔는데…”라며 웃더니 화끈하게 “두산팬 여러분께 3연패를 약속드리겠다”고 선제공격을 했다. 후배인 김기태 감독은 “한 팀이 앞서가면 안 되니까 우리가 막아보겠다”며 반격했다.

미디어데이가 광주에서 열리면서 방청객들이 거의 다 KIA 팬들로 구성됐다. KIA 쪽에서 애기가 나올 때마다 응원과 박수가 쏟아지자 김태형 감독은 “오늘 KIA 미디어데이인 것 같다”면서 “두산 팬 손들어 달라”고 즉석에서 요청해 폭소를 유발했다. 이어 “너무 편파적이다. 두산 팬

들은 방송을 통해 보실 거라 믿는다”고 말하자 오히려 KIA 팬들이 김태형 감독에게 환호와 박수를 보내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양 팀 1차전 선발투수에 대해 김태형 감독이 “에이스라 당연히 니퍼트다”고 답하자 김기태 감독은 “우리는 양현중도 에이스지만 키 순서로 정했다”고 재치 있게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1차전 핵터, 2차전 양현중을 의미했다.

‘상대팀에서 미출전 선수를 1명 선택할 수 있다’며 “이라는 질문에 김태형 감독은 “김기태 감독을 안 봤으면 좋겠다”고 장난을 걸었고, 김기태 감독은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웃다가 “나도

그렇게(김태형 감독을 안 보는 걸로) 하겠다”고 화답했다.

●선수들의 재치와 입담

두산의 ‘미디어데이 에이스’인 유희관 뿐만 아니라 KIA 양현중도 춘철살인으로 미디어데이를 재미있게 만들었다. 상대보다 강한 부분에 대해 양현중이 “두산보다 딱 하나 있는데, 우주의 기운”이라고 답했다. 2009년 우승 당시 화제가 됐던 회두를 다시 꺼내들었다. 유희관은 “곰과 호랑이가 만나 ‘단군매치’라고 하던데 그 자체가 곰이 호랑이를 이긴다는 얘기 아니냐. 마늘과 싸움 먹었던 곰의 인내와 끈기로 호랑이를 잡도록 하겠다”고 도발(?)했다.

양현중이 “우리는 홈 7연전이라 생각한다”며 광주와 잠실을 가리지 않고 찾아주는 KIA 팬들의 응원을 기대하자, 유희관은 “3~5차전에서는 우리가 1루를 쓰니 KIA는 원정이 맞다”고 따끔하게(?) 지적했다.

오재일과 김선빈은 모범답안 속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상대보다 강한 부분에 대해 오재일이 “PO를 잘 마치고 돌아왔기 때문에 분위기가 더 좋은 것 같다”고 했고, 김선빈은 “두산은 여유가 많겠지만 우리는 간절함이 더 많다”고 말해 박수를 받았다.

광주 | 이재국 전문기자 keystone@donga.com

두산은 5차전·KIA는 6차전 예고…왜?

한국시리즈(KS) 미디어데이가 열린 24일 전남대학교 용지관 컨벤션홀, 행사가 끝난 뒤 시리즈 전망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두산 김태형 감독과 유희관, 오재일은 손가락 5개를 펴 보였다. 시리즈를 5차전에서 끝내겠다는 의미였다. KIA 김기태 감독과 양현중, 김선빈은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며 “6차전이라는 뜻”이라고 밝혔다. 이 장면에는 홈 팬들의 환호를 받으며 우승을 확정하겠다는 양 팀의 강한 열망이 담겨있었다.

KIA가 홈구장인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우승을 확정하려면 최소 6차전까지 치러야 한다. 시작부터 “광주에서 추배를 들 수 있도록

양현중 “30년만에 광주서 우승 축배 들 것”
유희관 “KIA 광주서 우승은 31년 결별 것”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양현중은 “우승 세리머니를 지금 생각하신 안 된다”고 경계했다. 그러면서도 “우리 팀이(해태 시절 포함) 광주에서 KS 우승을 확정할 게 무려 30년 전이다. 광주에서 우승을 확정하고 싶다”고 밝혔다. 양현중의 말대로 KIA는 1987년 KS에서 삼성을 4전

승으로 꺾은 이후(당시 무등구장) 광주에서 KS 우승을 확정할 사례가 없다. 2009년 SK와 KS에서 4승3패로 이겼을 때도 잠실에서 추배를 들었다.

두산은 5차전까지 먼저 4승을 거두면 홈구장인 잠실구장에서 우승 추배를 들 수 있다. 이르면 4차전에도 가능하다. 유희관은 “KIA가 광주에서 우승을 확정하는 때까지는 30년이 아닌 31년이 결별 것 같다”고 응수했다.

광주 |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

‘티켓전쟁 패자’ 김선빈

“혈압이 올라서 컴퓨터 꺾어요.”

25일부터 두산-KIA의 한국시리즈(KS·4연승제)가 시작된다. 양 팀이 KS에서 처음 맞붙는 만큼 티켓을 손에 넣기 위한 경쟁도 어느 때보다 치열하다. 22일 오후 2시부터 포스트시즌(PS) 입장권 단독 판매사에서 인터넷 예매를 시작했는데, 서버가 마비될 정도로 야구팬들의 눈치싸움이 치열했다. 자연스럽게 양표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고 있다.

KIA 김선빈(28)은 24일 미디어데이에서 예매 전쟁에 뛰어들었다가 처참한 실패를 맛본 사연을 공개했다. 2009년 이후 8년 만에 KS에 진출한 KIA 팬들의 우승 열망은 엄청나다. 특히 KIA가 2014년부터 홈구장으로 쓰는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열리는 첫 가을야구라는 점도 팬들의 기대감을 키우기에 충분하다. 김선빈은 “티켓 예매를 준비하던 친척 동생의 연락을 받고 PO방으로 달려갔다”며 “(티켓 예매 과정중) 직접 체험했었는데, 실패했다. 혈압이 올라서 컴퓨터를 꺾다”고 웃으며 말했다. 김선빈과 동석한 양현중도 티켓 얘기가 나오자 한숨을 내쉬고는 “티켓 부탁을 정말 많이 받았다”며 “선수의 지인들도 티켓을 구하기가 어려운데, 팬들께선 어땠을지 짐작이 간다. 2009년에는 어떻게 그 작은 무등구장에서 KS를 치렀는지 모르겠다”고 허를 내들었다.

광주 | 강산 기자

오직 결과로만 말하는 ‘김태형 리더십’



김명준의 18.44m

#꽤 오래 전 일이다. 어느 팀 감독이 코치진을 바꿨다. 소위 자기 사람을 심었다. 두산 김태형 감독에게 이 얘기를 전했더니 그답게 즉각 반응이 나왔다. “나는 아니라고 봐요.” 이유가 지금도 기억에 남는다. “감독이라면 자기 사람이 아닌 이도 활용할 줄 알아야지.” 실제 김태형은 두산 감독 첫해(2015년) 자기보다 나이 많은 수석코치(유지환), 타격코치(박철우), 투수코치(한용덕)와 일했다. 감독 3년차인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다. 편 가르기가 행하는 야구판에서 ‘김태형 사단’이라는 말은 없다. 선배 코치들과 일하면 불편할 법도 하건만 김 감독은 간결하다. 감독은 감독, 코치는 코치인데 할 말을 아끼면 직무유기라고 생각한다. 일로 모인 전문가 집단이라면 일로 실적을 내고, 책임지면 된다는 것이다. 코치한테도 이렇진대 하물며 선수한테는 말할 것도 없다. 연차도, 연봉도, 국적도 심지어 자존심도 별로 따지지 않는다. 지금 이 순간, 팀 두산의 승리를 위해 누가 필요한지 그 기준 하나다. 냉정하지만 공평하다. 프로 야구팀은 동아

리가 아니다. 이겨야만 생존과 행복을 담보할 수 있는 조직이다.

#프로배구 삼성화재 신치용 단장은 “감독은 기생”이라고 말한다. 인사권을 쥐었다고 남용해선 안 된다는 경계다. 선수로부터 두려움과 호감을 동시에 얻어야 리더다. 소위 ‘밀당’ 기술이다. 이런 것은 배워서 될 영역이 아니다. 천부적 본능에 가깝다. 언젠가 두산은 꼭 이겨야 될 경기를 앞두고 있었다. 그런데 핵심선수 A가 쉬고 싶었다. 김 감독은 A가 뛰었으면 했다. 그렇다고 ‘뛰라’고 강요하지 않았다. 김 감독은 필드에 나갔다. 훈련 내내 A의 뒤에 말없이 서 있었다. A 입에서 ‘못 한다’는 말이 나올 수가 없었다. 그렇게 A는 뛰었고, 두산은 그 경기를 잡았다.

#두산은 2016시즌 올스타 브레이크 때 감독

재계약 발표를 했다. 기묘하게도 발표만 했지, 조건은 한국시리즈(KS) 이후로 늦췄다. ‘이게 뭐냐’는 서운함도 없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자신을 두산으로 불러온 프린트에 딱히 싫은 내색을 하지 않았다. 단일시즌 역대 최다승(93승)으로 정규시즌을 끝냈다. NC와의 KS도 4연승으로 끝냈다. 오직 결과로 프린트를 무장 해제시켰고, 감정소도 없이 최고대우(3년 총액 20억원)를 끌어냈다. 세간에서 두산의 우승을 ‘선수 덕’이라 여기는 시선이 있다. 굳이 김 감독은 반박하려 들지 않는다. 두산의 시스템이 강력한 것은 맞다. 그러나 시스템을 움직이는 주체는 결국 리더다. 그리고 좋은 리더는 흔치 않다.

스포츠 2부 기자 galzby@donga.com

편집 | 안도영 기자 do02@donga.com